한국타이어 화재 손익계산 분주

효성, 타이어코드지 납품차질 불가피 … 금호는 매출증가 예상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화재로 공장가동이 지연됨에 따라 타이어코드 수요 대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효성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타이어 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금산공장의 가동이 2-3개월 차질을 빚으면 연간 600톤의 타이어코드지를 납품하고 있는 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효성이 여유물량을 수출로 전환하면 피해를 상쇄할 수도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화재 때문에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이어의 금산공장 재고수준이 2주일 정도에 불과하고 금호타이어도 추가 생산여력이 부족해 화재복구가 2주를 넘으면 일부 인기차종에서는 타이어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1997년 1차 준공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의 현재 생산능력은 연간 770만개로 절반은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 수출되고 나머지가 국내 완성 자동차 납품 몫이다.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원료 저장고 옆에 위치한 믹싱 플랜트의 손상 여부이다.

고무에 Carbon 등 화학제품을 섞는 기초설비인 믹싱시설까지 화재가 미치지는 않았지만 초정밀공정이 요구되는 믹싱시설이 작은 손상이라도 입었다면 전체 가동시점이 상당히 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나 금호타이어 모두 전체 생산제품의 절반인 수출물량을 내수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해외고객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어 고심중이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11일 오후 6시30분께 고무원료를 섞는 정련공장인 1공장 2층 가온실에서 불이 나 1층 10만㎡중 3만㎡와 2층과 3-4층 사무실을 태웠다.

3월11일 오후 대형화재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433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2년6개월 동안 3500억원이 투입돼 1997년 10월17일 1차 준공했다.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그린공장 개념이 적용된 새로운 타이어공장으로 1차 준공 당시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했다.

금산공장은 가동 초기 연간 540만개의 승용차용 Radial 타이어(PCR)를 생산했으며, 이후 꾸준한 증설을 거쳐 현재는 연간 1000만개로 생산능력을 끌어 올렸다.

금산공장은 생산제품 중 50% 가량을 국내 소비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50% 정도는 유럽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07년까지 5460억원을 금산공장에 추가투자, 연간 115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3월11일 발생한 금산공장 화재 피해를 잠정 집계한 결과 정련공장 3만6981평 가운데 530평이 불에 타 향후 조업차질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하면 36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기계설비가 몰려있는 압연공장이 피해를 입지 않아 화인조사와 안전점검이 끝나는 2주일 뒤부터는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19>